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5권 2호 (2015년 12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플
그
라
프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화수, 이민경, 이용승, 이희영,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소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박계영(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이민경(대구대), 이용승(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덕성여대), 장혜진(대구대),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Ratih Pratiwi Anwar(Universitas Gadjah Mada, Yogyakarta)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5년 제5권 2호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5권 2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논문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사의 침묵에 대한 고찰 / 장혜진 139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현황 및 과제 / 최은영 161

다문화시대에 지방자치의 역할: 이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중심으로 / 이용재 181

Teaching Korean Language to Filipino Students / Jay-Ar M. Igno 210

Return Migration and Local Development in Indonesia / Ratih Pratiwi Anwar 224

서평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 김문수 258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5권 2호를 펴내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대규모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따른 인구 구성 및 상이한 생활양식과 가치관, 의식과 문화의 혼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적, 문화적 변화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구와 문화 간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며, 때로 서구 사회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심각한 폭동이나 시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원만한 전환을 위하여 지역 사회 및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 이주자와 이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하지만, 특히 교육과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호에 투고된 논문들은 주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정책,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주민 지원조례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외국의 교육 및 정책 사례로, 필리핀에서 한국어 교육 문제와 한국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 인도네시아 귀환이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자발적 조직의 현황과 그 효과 등을 다룬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유아에 대한 교사의 침묵에 대해 고찰한 장혜진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교사가 유아를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참여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 논문은 다문화가정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교실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소극적이며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평등을 고려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교사의 모습을 ‘교사의 침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문화가정 유아가 있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태도를 재조명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사가 기입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과는 달리 교실에서 직접 참여 관찰을 통해 실

제 상황에 더 가까운 연구결과를 얻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논문은 “유아교사는 다문화적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은영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논문은 우선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대상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논문은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분석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들의 업무 중복성, 재정 지원의 부족, 서비스 전달과정상의 연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현장에서 다문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소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면서 다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육아지원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정책대상을 확보하고 기관이용과의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육아지원과 연계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용재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 및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수준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지방자치행정에 머물러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라 인적 및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고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들의 언어·종교·인종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형식들은 사회 곳곳에서 비제도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주민으로 수용하고 통합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법률과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조례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이주민 정책은 국적을 기초로 한 사회통합정책이며, 민족문화에 기초한 동화정책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문화시대에 국민을 단위로 하는 동화정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이를 위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표준조례안의 무조건 수용을 통한 획일적 조례제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래에서 합의에 기초한 국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수법에 관한 제이알 마뉴엘 이그노(Jay-Ar M. Igno)의 연구는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필리핀의 한국어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모범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필리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거론되는 “한국어는 정말 재미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는 말에 착안하여, 한국어 교육 과정을 흥미로우면서도 단순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필리핀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 간 공통점과 함께 지도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어 문법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 발음 규칙을 충분히 다뤄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k]와 [g], [t]와 [d], [p]와 [b]의 이음변인, [n]→[l], [p]→[m], [k]→[ŋ]의 형태 음운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암기, 반복, 구두 발표 등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 및 학습 방식이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과 도구, 즉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 시청각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와 학생의 언어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레띠 프라뜨위 앤와르(Ratih Pratiwi Anwar)는 국제기구들과 유입국 및 유출국 정부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는 귀환이주와 지역발전 간 관계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인도네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즉 이 연구는 송출국에서 이주와 발전 간에 시너지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국제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방의 4개 이주유출 마을을 사례 연구로, 귀환 이주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기업 프로그램, 귀환 이주자들의 조직 구성, 귀환 이주자들에 의해 선도되는 발전, 그리고 이러한 선도 활동이 기업 및 지방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지역사회에서 귀환 이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재통합 과정에 관한 심층 정보와 이해를 위하여 민속지적 및 참여적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정부 사업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고 귀환이주자 조직에 의해 장려된 귀환이주는 국제 이주와 지방 발전 간 시너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허라금 엮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에 관한 김문수의 서평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이주와 이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일상과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으며, 또한 아시아 각 지역에 어떠한 변수로 작동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여성 이주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구조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여성의 이주를 젠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제이주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여 현지인의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며 각 부는 장으로 나누어져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서평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그 의의를 살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여성의 이주를 젠더의 관점, 현지인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책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점과 우리가 처한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와 노동이주 그리고 이를 통해 전개되는 새로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한 국가, 한 개

인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없으며, 송출국과 유입국, 이주자와 원주민 간의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호에 초국적 이주 및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를 게재하였다. 앞으로도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소수문화가 주류 사회 내에서 어떻게 혼재하면서 한편으로 갈등과 대립, 다른 한편으로 상호인정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2015년 12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